

라이프 코스 연구에 관한 일 고찰*

안 병 철**

- I. 머리말
- II. 라이프 코스 연구의 등장 배경 및 전개 과정
- III. 라이프 코스 관점의 특성
- IV. 라이프 코스 연구의 연구 영역 및 과제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논문의 목적은 라이프 코스 *life course* 연구를 연구의 등장 배경 및 전개 과정, 라이프 코스 관점의 특성, 라이프 코스 연구의 연구 영역 및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1970년대 이래로 서구에서는 인간의 생(生)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라이프 코스 또는 라이프 코스 접근법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Hagestad and Neugarten, 1985).¹⁾

국내에서도 한국인의 라이프 코스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고,²⁾ 가족 연구에서 라이프 코스 관점을 소개하는 논문도 있다.³⁾ 그러나 외국의 연구 성과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인간 발달과 관련하여 라이프 코스 연구가 그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관점의 특성은 어떠한지, 라이프 코스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무엇인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II. 라이프 코스 연구의 등장 배경 및 전개 과정

생(生)에 관한 연구는 사회과학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⁴⁾ 특히 사회 변동이 급

* 이 논문은 1991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1) 일본에서도 모리오카 기요미(Morioka Kiyomi)를 중심으로 한 가족 및 라이프 코스 연구회(Family and Life Course Study Group)가 1982년에 일본인의 라이프 코스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Long, 1987).

2) 한경혜의 연구(1991;1993a;1993b)를 들 수 있다.

3) 이인수(1991)를 참조하기 바란다.

4) 사회과학 내에서도 라이프 코스에 관한 관심은 다양하다. 사회학자는 연령 층화와 세대간, 세대내 사회 이동에 관심이 있고, 경제학자는 생애주기 부자 및 소비와 인적 자본 형성에 관심이 있다. 인구학자는 출산력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고, 심리학자는 인

한 연구 과제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Elder, 1991). 여기서는 라이프 코스 연구의 등장 배경을 알아보고, 연구의 전개 과정을 1940년 이전과 1960년 이후의 두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⁵⁾

1. 등장 배경

최근 서구의 사회과학계에서는 생애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생애 관한 연구는 연령 분화, 사회 이동 및 직업 이동과 지위 획득, 가족 인구학, 생애 주기 소비 및 저축, 일대기 연구, 인간 발달, 그리고 평생 발달 심리학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와 같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로부터 진전되었다(Mayer and Schoepflin, 1989). 생애 관한 연구가 20세기 후반부에 하나의 주요 연구 영역으로 부각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전통 외에도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먼저, 이용 가능한 좋은 자료들이 종단적 연구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종단적 연구들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들은 (a) 1904년에서 1920년 사이에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캘리포니아인들을 대상으로한 터만(Terman)의 연구, (b) 1920년에서 1921년 사이에 출생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오클랜드(Oakland) 성장 연구, (c) 1928년생과 1929년생을 대상으로 한 버클리 지도 및 성장 연구 *Berkeley Guidance and Growth Studies*이다. 이 연구들은 연구가 시작될 당시에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들의 발달 과정을 추적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궁극에는 추적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자료 수집이 1980

년대까지 계속되었고, 응답자들의 그 후의 생애 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Elder, 1991).

그 다음으로 인구학적 조건이 변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역사인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70~80년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불과 200~300년 전만 하더라도 성인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 즉 현대 인구학적 조건이 생애 범주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시간적으로 개념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최근 새로운 현상으로서 라이프 코스의 출현은 인구학적 조건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Hagestad, 1990).

2. 전개 과정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서 라이프 코스 연구는 두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1940년 이전으로, 이 시기는 미국 사회학에서 초기 시카고 학파가 활동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두 번째 시기는 1960년 이후다(Elder, 1985). 여기서는 두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첫 번째 시기와 라이프 코스

라이프 코스 사고(思考)의 첫 번째 시기는 1900년에서 1940년에 이르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미국에서 이동과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던 시기다. 이 시기는 또한 시카고 사회학파가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 예컨대, 도시로의 이민, 높은 비행률과 범죄율, 가족 해체, 그리고 정신 질환을 연구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시카고 사회학파의 대

간 발달에 관심이 있다 (Mayer and Schoepflin, 1989).

5) 이러한 구분은 엘더(Elder)에 의해 시도되었다.

표적인 학자는 토마스(W. I. Thomas)였으며, 그는 변화 과정 속에서의 생(生)에 관한 연구에서도 선두 주자였다. 토마스는 “생애사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했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러 유형의 인간들을 연구해야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고 생의 다양한 과거 시기에서 연구해야 하며, 여러 집단의 개인들을 추적해서 이들의 경험을 계속 기록할 것”(Volkart, 1951; Elder and Caspi, 1988에서 재인용)을 주장하였다. 토마스의 이러한 주장은 대공황과 1960년대의 빈곤과의 전쟁 사이의 시기에는 거의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토마스가 추천한 주관적인 생활 기록의 사용이 전후 미국의 신실증주의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Elder and Caspi, 1988).

2) 두 번째 시기와 라이프 코스

1960년대에 몇 가지 발전이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이 라이프 코스 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먼저, 60년대의 사회적 상황은 세대, 역사적 영향, 그리고 생애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였다. 그 다음으로, 라이프 코스 접근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료들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소득 역동성에 관한 미시간 패널 연구 *Michigan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코스 연구에 적합한 분석 기법이 발전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이벤트 역사 분석 *event history analysis*’, ‘등식 체계에 기초한 인과 모형들 *causal models based on systems of equations*’ 등이다(Elder and Caspi, 1988). 또한 이 시기의 지적(知的) 분위기는 라이프 코스 역동성 *dynamics*을 하나의 연구 분야로 제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변동과 개인의 라이프

코스와의 결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와 역사에서 연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몇 가지 이론적 발전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발전이 사회 변동과 개인 변화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셋째, 연구와 이론적 활동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Elder, 1985).

두 번째 시기에 라이프 코스에 관한 주된 이론적 발전은 발달, 코호트, 그리고 노화를 연구하고 있던 뉴거턴(B. Neugarten), 라이더(N. Ryder), 라일리(M. Riley)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뉴거턴이 이끈 연구 프로그램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라이프 코스에 관해 규범적 관점 *normative perspective*을 발전시켰는데, 이 관점은 규범적 시간표라는 개념과 개인이 이러한 기대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느냐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서 라이프 코스 시간표는 사회적 연령을 말하는데, 사회적 연령은 이벤트 *event*와 관련된 규범에 관한 사람들의 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기대 연령 *age expectation*은 주요 전이 *transition*에 대한 적합한 시점을 명시한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 집을 떠나는 것, 혼인하는 것, 자녀를 가지는 것, 그리고 은퇴하는 것에 대한 적합한 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시간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결과하는 바가 있는데, 여기에는 비공식적인 제재에서부터 기회의 상실 및 라이프 코스 무질서 등이 있다. 뉴거턴의 선구적인 연구와 사회인구학이 발전하면서 이벤트간의 상이한 시점과 순서 *sequence*는 라이프 코스 연구에서 가장 활발한 영역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Elder, 1991).

라이더의 논문, ‘사회 변동 연구에서 개념으로서의 코호트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Ryder, 1965)는 라이프

코스를 연구하는 개념으로서 코호트를 제외한다. 그는 '생의 단계 원리 *life-stage principle*'를 활용하여 사회 변동과 코호트의 생의 유형 *life pattern*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했다. 그에 의하면, 역사적 사건이 코호트의 라이프 코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코호트가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생의 단계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대량 실업과 군 징집이 가지는 의미는 개인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생의 단계에서의 차이는 적응시의 자원 *resources*, 선택 *options*, 의미 *meanings*에 대해 무언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회 변동과 생의 결과들을 연결시킬 때 잠재적 요인이 된다. 연령과 시간과의 결합에 대한 라일리의 논문은 생애 시간과 역사적 시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하게 해주었다(Elder and Caspi, 1988).

라일리 등이 쓴 〈노화와 사회(Aging and Society)〉(Riley, Johnson, and Foner, 1972)에서는 사회적 연령과 역사적 연령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차원이 통합되고 있다. 연령은 코호트를 통하여 역사적 분화의 기초를 나타내고,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지위와 역할의 순서에 따라 사회적 분화의 기초를 나타낸다. 따라서 연령 총화는 사람과 사회적 역할에 질서를 부여한다. 사회화와 역할 할당은 노화와 코호트 계승 과정에서 사람과 역할을 연결시킨다. 역사적 연령 및 코호트와 라이프 코스에서의 사회적 연령과의 관련성은 연구자들에게 역사에서 생의 이벤트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주목하도록 하였다. 이혼이 좋은 예다. 1960년에서 1980년대까지 미국의 이혼율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혼의 의미와 이혼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에서 약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구조에서 출생 코호트와 연령 분화를 관련시킴으로써 라일리 등은 이러한

연령 분화 양식간에 중요한 차이를 부각시켰다(Elder and Caspi, 1988).

1990년대가 되면 라이프 코스는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생, 인간 발달, 노화를 연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이론적 틀이 된다. 이러한 발전은 종단적 연구가 계속 성장한 점과 시간 *time*, 과정 *process*, 맥락 *context*을 나타내는 생애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출현한 점과 관계가 있다(Elder, 1991).

III. 라이프 코스 관점의 특성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생(生)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역사가 20세기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는 생애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애 주기 *life cycle*, 라이프 스패 *lifespan*, 생애사 *life history*, 그리고 라이프 코스와 같은 개념들을 비교해 보고, 라이프 코스 관점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 보고자 한다.

1. 개념 구분

생의 유형 *life patterns*에 대한 연구에서 생애 주기, 라이프 스패, 생애사, 라이프 코스와 같은 몇 가지 개념들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되어야 한다(Elder, 1991). 여기서는 먼저 이러한 개념들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1) 생애 주기

생애 주기라는 개념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생의 이벤트들을 묘사하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생애 주기는 자녀의 출생에서부터 자녀들이 떠나는 것을 거쳐 자녀 자신이 부모가 되는 것과 같이 생

애에 걸친 부모됨의 연속적인 단계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속적인 단계는 인구의 재생산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생애 주기는 가족 주기, 즉 가족 구성과 크기의 차이에 의해 일차적으로 정의되는 부모됨의 순차적인 단계들로 알려져 있다. 주요 전이점 *transition points*은 혼인, 첫 아이와 끝 아이의 출생, 자녀의 학교와 관련된 전이, 가정에서 첫 아이와 끝 아이의 떠남,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혼인 해체 등이다(Elder, 1991). 라이프 코스, 라이프 스펠과 비교할 때 생애 주기의 특징은 이 개념이 인구의 재생산 기제에 의해 야기되는 성숙적, 세대적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애 주기는 단계, 성숙(발달), 그리고 세대(재생산)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O'Rand and Krecker, 1990). 이 개념의 한계점은 연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 특정 단계에 도달하는 시점과 특정 단계에서의 지속 기간에 대한 정보없이 각 단계로 나아가는 점도 문제다. 게다가 역사적 맥락도 결여되어 있다(Elder, 1987).

2) 라이프 스펠

라이프 스펠은 개인 생의 최대한의 잠재력을 말한다. 이 개념은 출생과 사망이라는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분화되지 않은 생애 시간을 의미한다. 주로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이고, 정신 내부의 현상 *intrapsychic phenomena*에 초점을 맞춘다. 이 개념은 1960년대 후반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 대학에서 시작된 평생발달 심리학에 관한 학술회의를 통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이 개념을 활용한 라이프 스펠 접근법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관련된 생물적, 행동적 변화에 대한 서술과 설명에 관심이 있다(Hagestad and Neugarten, 1985; O'Rand

and Krecker, 1990; Elder, 1991).

3) 생애사

생애사는 일반적으로 일생 동안의 이벤트와 활동의 연대기를 말하는데, 교육, 일, 생활, 가족, 거주지에 대한 기록 자료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고문서로부터 정보를 얻음으로써 생성될 수도 있고, 생애 달력 *life calendar*이나 연령-이벤트 매트릭스 *age-event matrix* 사용에서와 같이 응답자를 면접해서 얻을 수도 있다. 생애 달력은 각 활동 영역에서 전이가 일어나는 연령을 기록한다. 그리하여 이벤트 역사 분석 *event-history analysis*에 적합하게, 그리고 인과 분석을 평가하기에 적합하게 라이프 코스를 서술한다. 또한 생애사는 생애 관한 자기 보고식의 이야기를 의미하는데, 토마스와 즈나니에키(Thomas and Znaniecki)가 한 폴란드 농민에 관한 연구가 그 예다. 자기 보고든 연구자가 수집한 것이든, 생애사는 시간에 따른 이벤트나 이야기에 관한 자료 수집의 산물이다(Elder, 1991).

4) 라이프 코스

라이프 코스는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생의 패턴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생의 패턴은 사회제도와 관련되어 있고, 역사적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이프 코스는 서로 맞물려 있는 궤적 *trajectory* 또는 도정 *pathways*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을 가로 지르는 이러한 궤적 또는 도정은 사회적 전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이프 코스는 궤적과 전이에 의해 규정된다. 궤적은 가족이나 일과 같이 생의 많은 부분에 걸쳐 있다. 전이는 짧은 기간의 변동으로서, 집을 떠나는 것, 취직을 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Elder, 1991). 이 개념은 주로 사회학자들

이 사용하는 개념인데(Hagestad and Neugarten, 1985), 생애 주기, 라이프 스펙, 그리고 생애사와 라이프 코스와의 차이는 이 개념을 활용하는 라이프 코스 관점의 특성을 살펴 보면 보다 뚜렷해진다.

2. 라이프 코스 관점의 특성

라이프 코스 관점은 1960년대에 등장한 관점이다. 사회사와 개인사와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관점이 등장하게 되었다(Elder, 1987). 전통적으로 라이프 코스에 관한 연구는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상이한 연령 집단들, 상이한 생의 단계들, 가족 주기, 출산 내력, 직업 경력 및 고용과 같은 상이한 생의 영역들, 수입과 소비의 역동성, 이동, 그리고 노화의 규범적 유형에 관한 연구들로 나뉘어져 진행되어 왔다(Mayer and Schoepflin, 1989). 엘더(Elder)에 의하면, 사회학에서 라이프 코스 접근법의 뿌리는 생애사 및 개인의 경력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1920년대와 1930년대 시카고 사회학파의 연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허레벤(Hareven)은 일대기와 구술사에 대한 관심이 발전한 점을 지적하고, 허게스타트와 뉴거튼(Hagestad and Neugarten)은 연령 등급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와 생애 시간이 경과하는 데 대한 사회적 의미 부여에서 찾는다. 그리고 평생 발달 심리학의 발전도 영향을 주었다(Long, 1987).

라이프 코스 관점은 개인의 생애 시간, 사회적(가족) 시간, 그리고 역사적 시간이라는 세 개의 시간 축을 연결시킨다. 개인의 생애 축은 연령 및 연령 총화와 관계되고, 특정 연령과 관련하여 그 의미, 행동의 예상 및 취약성과 관계가 있다. 사회적 시간의 한 측면으로서 가족 이벤트 순서

*family event sequence*는 연령 표식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령 표식은 결혼, 부모됨, 자녀 출가 등과 관련하여 개인이 '적령 *on time*'인지 '비적령 *off time*'인지 알려 준다(Aldous, 1990).

이론적 지향으로서 라이프 코스는 연구를 인도하는 틀, 즉 문제 확인 및 형성, 변수 선택 및 근거, 연구 설계 및 분석 전략의 면에서 틀을 제공함으로써 공통의 연구 영역을 확립하였다(Elder, 1991). 우리는 라이프 코스 관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라이프 코스 관점은 개인의 생을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설명하려는 관점이다(Long, 1987).

2) 라이프 코스 관점은 이전의 접근법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한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단순한 모델들과는 다르다. 이전의 모델에서 개인의 라이프 코스는 개인의 직업 생활이나 결혼 생활과 같이 단일한 생의 도정 *single life path*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라이프 코스 관점은 상호 의존적인 생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Elder, 1987).

3) 라이프 코스 관점은 시간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출생 연도에 따라 개인과 가족 성원을 역사에 위치시키는 점에서 시간적이고, 연령의 사회적 의미를 통해 개인과 가족 성원을 라이프 코스에 위치시키는 점에서 맥락적이다(Elder and Caspi, 1988).

4) 라이프 코스 관점은 사회적 인간 *social persona*이 변화를 겪는 전환점을 강조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창출되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며,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연령과 관련된 전이들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사회적 전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라이프 코스 분석은 필연적으로 역사적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Hagestad and Neugarten,

1985).

5) 라이프 코스 관점은 세대보다는 연령 코호트 *age cohort* 개념을 선호한다. 세대는 개인을 역사적 맥락에 정확히 위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세대의 연령 범위는 30년을 넘을 수 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부모나 조부모와 같이 매우 다른 세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연령 코호트 개념은 개인을 역사적 맥락에 정확히 위치시킨다(Elder, 1991).

6) 라이프 코스 관점은 코호트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코호트내의 비교도 한다. 코호트간의 비교는 코호트내의 하위 집단들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사회변동의 효과를 제한한다(Elder, 1991).

7) 라이프 코스 관점은 사회변동과 이러한 사회변동이 개인의 행동과 가족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사회 변동과 생의 유형간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상이한 생의 도정(道程)이 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Elder and Caspi, 1988).

IV. 라이프 코스 연구의 연구 영역 및 과제

지금까지 우리는 라이프 코스 및 라이프 코스 관점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라이프 코스 연구의 연구 영역 및 주요 과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라이프 코스 연구는 개인, 가족 또는 집단, 그리고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 발견되는 지각과 상징들중 하나에 집중한다. 먼저, 개인 수준에서의 강조점은 환경내에서 개인은 자신의 라이프 코스를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존재라는 데 있다. 여기서 개인은 일생동안 여러 개의 경력을 가지

는 존재로 이해된다. 핵심 개념은 전이와 궤적이다. 전이는 취업, 실업, 결혼, 이혼 등과 같이 라이프 코스에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전환점 또는 역할 변화를 말한다. 중심 과제는 전이의 시점, 간격, 순서의 유형과 다양성을 연구하는 데 있다. 전이가 분석 범위의 면에서 단기적이라면, 궤적은 장기적이다. 예컨대, 직업 궤적, 혼인 궤적, 소득 궤적, 자존심 궤적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다(Elder, 1985; Long, 1987).

그 다음으로, 라이프 코스 연구는 개인의 라이프 코스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라이프 코스와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한다. 플래스(Plath)는 이들을 “결합체 *consociates*”라고 부른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 수행 및 경력 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불행과 기회는 개인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결혼과 직업 활동에서의 실패는 흔히 성인 자녀를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는 부모로 하여금 노년기를 위한 자신들의 생활 계획을 변경시킨다. 반면에 청소년을 둔 부모의 경제적 실패와 혼인 해체는 자녀의 고등 교육과 혼인을 연기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성인기로의 전이를 방해할 수 있다. 각 세대는 다른 사람의 라이프 코스에 치명적인 결정과 이벤트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Long, 1987; Elder, 1991).

끝으로, 라이프 코스 연구는 라이프 코스 문화 현상학을 다룬다. 여기서 라이프 코스 문화 현상학이란 사회집단의 성원들이 정상적인 전이와 궤적을 어떻게 지각하는 가를 의미한다. 중심 주제는 (a) 정상적인 생의 단계는 무엇이고, (b)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며, (c) 단계들이 어떻게 지각되고 평가되는가 등이다(Long, 1987; Hagestad, 1990).

V.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라이프 코스 연구를 연구의 등장 배경 및 전개 과정, 라이프 코스 관점의 특성, 그리고 라이프 코스 연구의 연구 영역 및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애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그 근원을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초기의 대표적인 연구는 토마스와 쾰나니에키가 폴란드 농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사적 연구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단절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신실증주의가 전후 미국 사회과학의 주류를 형성한 점과 관계가 있다. 1960년대 이후 생애 관한 연구는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여기에는 20세기 초반부터 진행되어 온 종단적 연구의 자료들이 이용 가능하게 된 점과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노화의 문제가 부각된 점이 작용하였다.

사회학에서 라이프 코스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는 글렌 엘더(Glen Elder)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회 변동과 인간의 생애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라이프 코스 관점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라이프 코스 관점은 인간의 생애를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관점인데, 이 관점에서는 특히 세 가지 차원의 시간이 강조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 변동과 생애의 유형 및 인간 행동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애 시간, 사회적 시간, 그리고 역사적 시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연구 주제의 면에서는 개인의 전이 및 궤적이 핵심이며, 가족 성원들간의 연동궤적 *interlocking trajectories*도 중요하다. 이 외에 라이프 코스 문화 현상학도 주요 관심 영역이다. 여기서는 정상적인 전이와 궤적을 사회 성원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 지를 다룬다.

라이프 코스 관점은 개인을 역사적 맥락에 정확히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또 이 관점에서는 이벤트의 시점, 지속 기간, 간격, 순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생애 시간, 사회적 시간, 그리고 역사적 시간과 같은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과도한 복잡성 *overcomplexity*을 띠고 있다는 것이 이 관점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Aldous, 1990).

참고문헌

- 이인수. 1991. “가족 연구에 있어서 라이프 코스 (Life Course) 접근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11.
- 한경혜. 1991. “세대관계 측면에서 본 Life Course 전이와 역연쇄전이의 시기-결혼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11(1): 36-48.
- 한경혜. 1993a. “사회적 시간과 한국 남성의 결혼연령의 역사적 변화-생애과정 관점과 구술생활사 방법의 연계.” 「한국사회학」 제

- 27집(겨울호) : 295-317.
- 한경혜. 1993b. "한국 남성의 성인기로의 전이 유형의 변화."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 39집 : 121-171.
- Aldous, Joan. 1990. "Family development and the life course : Two perspectives on family chang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2(3) : 571-583.
- Elder, Glen H., Jr. 1985.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In Glen H. Elder, Jr., ed., *Life Course Dynamics*, pp. 23-49.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87. "Foreword." In Susan O. Long, *Family change and the life course in Japan*, pp. ix-xi. Cornell University East Asia Papers Number 44.
- _____. 1991. "Life Course." In E. Borgatta and M. Borgatta, eds., *Encyclopedia of Sociology* vol. 2, pp. 1120-1130.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Elder, Glen H., Jr., and Avshalom Caspi. 1988. "Human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 an emerging perspective on the life course." In N. Bolger, A. Caspi, G. Downey, M. Moorehouse, eds., *Persons in context*, pp. 77-113.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gestad, Gunhild O. 1990. "Social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In Robert H. Binstock, and Linda K.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3d ed., pp. 151-168. New York : Academic Press.
- Hagestad, Gunhild O., and Bernice L. Neugarten. 1985. "Age and the life course." In E. Shanas and R. Binstock,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 pp. 35-61. New York : Van Nostrand-Reinhold Company.
- Long, Susan O. 1987. *Family change and the life course in Japan*. Cornell University East Asia Papers Number 44.
- Mayer, Karl U., and Urs Schoepflin. 1989. "The state and the life course." In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187-209.
- O'Rand, Angela M., and Margaret L. Krecker. 1990. "Concepts of the life cycle : Their history, meanings, and uses in the social sci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 241-262.
- Riley, Matilda W., Marilyn Johnson, and Anne Foner. 1972. *Aging and Society* Vol. 3, *A Sociology of Age Stratification*.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 843-861.